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지원할 것”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제17대 김란 회장 취임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어갈 제17대 김란 회장이 취임했다.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21일 오즈하우스 명품관에서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대 광영신 회장 이임식 및 제17대 김란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취임식에서는 지난 3년간 남다른 사명감으로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어온 제16대 광영신 회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과 제17대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새로 이끌어갈 김란 신임 회장의 취임식 순으로 진행됐다.

김란 회장은 “여성의 권리 증진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며 “여성 단체에서 함께 활동한 회원을 모집하는 등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소속 단체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공명선거 캠페인 △녹색실천 환경 교육 등 그동안 여성 관련 정책 건의와 여성의 사회 참여를 통한 권리 증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21일 오즈하우스 명품관에서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대 광영신 회장 이임식 및 제17대 김란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순창군 적성면 무술년 신년하례식 개최

적성면이 최근 적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무술년 신년 하례식을 진행했다. 적성면민회(회장 권오상)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신년 하례식은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각 마을 노인회장님과 마을 어르신, 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 를 빛냈으며, 횡숙주 군수를 비롯 죄영일 도의원, 정성균·전계수 군의원, 면 유관기관장 및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해 덕담을 나누고 새해 적성면의 발전과 화합 을 기원했다.

횡숙주 군수는 무술년 적성면 신년하례식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 했으며, 적성면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며 면민들에게 큰절로 새해인사를 드렸다.

또한 면민회 발전을 위하여 500만원을 기탁해 신년하례식의 의미를 더했다. 신년하례식을 마치고 떡국행사도 진행되어 주민들 간 서로 덕담과 정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웃음을 넘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정읍사회복지관,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 가져

정읍사회복지관(관장 최정미)에서는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20 일 LHA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경로당에서 2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관 직원들의 세배를 시작으로 수성어린이집 아동들의 세배와 흥겨운 울음을 곁들인 노래공연이 이어져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불거리며 벽을거리로 다양

한 즐거움을 선사하여 새해 즐거운 하루였다고 반기는 모습이었다.

최정미 관장은 떡국 나눔행사에 참여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새해 건강 하시라는 덕담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진안군 6.25참전유공자회 호국안보결의대회 개최

진안군 6.25참전유공자회(회장 윤도희)는 지난 20일 18차 총회 및 호국안보결의대회를 목화예식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구 전라북도 6.25참전유공자회 회장, 유근주 부군수, 박명석 군의장을 비롯해 김현철 도의원, 군의원, 참전유공자 단체장 및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며 애국정신을 되새겼다.

유근주 진안 부군수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우리 국민의 자유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유공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을 최대한 예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시보건소, 걷기 동아리 운영 내달 재개

전주시보건소는 겨울 추위를 피해 중단했던 걷기 동아리 운영을 오는 3월부터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걷기 동아리는 시민 참여형 방식으로 회원이 10명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보건소 3층 건강증진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걷기 동아리로 선정되면 체성분 분석과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무료 검사, 운동 지도를 통해 건강한 걸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보건소는 걷기 동아리 회원 전원에게 만보기를 제공해 스스로 운동량을 접점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임실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가져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21일 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에는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와 아동안전지킴이로서 활동내용 등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3월 신학기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할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방향 및 균무수칙, 아동학대 균절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선발된 아동안전지킴이 균무자들은 임실관내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등 범죄취약지역에 2011조로 활동하여, 아이들의 등·하교시 이동보호 활동을 하게 되며, 학교주변 도보순찰을 통해 범죄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초동조치 및 경찰에 인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광호 경찰서장은 “아동안전은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며, 아동안전에 대한 지킴이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순찰과 선도활동을 펼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임실=진충영 기자

원광대 체육교육과 김세환씨, 체육교사 임용시험 전북 수석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사범대학 체육교육과가 2018년 체육교사 임용시험에서 총 18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가운데 김세환씨가 전북 수석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체육교사 임용시험은 지난해 11월 1차 시험에서 186명의 전북 지역 응시자 중 34명이 합격한데 이어 1월 16일부터 실시한 2차 시험 결과 김세환씨가 최고점을 얻었으며, 원광대 체육교육과는 김씨를 비롯해 전북 10명, 전남 5명, 충남 1명, 전북사립 2명 등 18명이 합격했다.

“교사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김씨는 “출발점에 비로소 서게 됐다”며, “교사는 직업이 아니라 선생이라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학교 현장에서 더욱 보고 배우며 끌어 아니라 시작임을 계속해서 다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부모님, 학과 교수님, 동기들, 수련기자에게 믿었던 모든 인연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다”며, “항상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하고, 국가대표 체육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사범대학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최근 몇 년 사이 최종 합격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트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